

국제경영 분야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권기환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권재현

장안대학교 물류경영과 교수

Review on Literature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Ki-Hwan Kwon^a, Jae-Hyun Kwon^b

^a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Sangmyung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Logistics Management, Jangan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5 October 2020, Revised 27 November 2020, Accepted 25 December 2020

Abstract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has consistently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key research pillars in the grand scope of trade studies. In this paper, we conducted critical review on literature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from 1975 to 2019. Especially, this paper analyzed ‘when did research resul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appear in *Korea Trade Review* for the first time?’, ‘how many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so far?’, ‘what topics have the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mainly described?’, and ‘what research methods have the paper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adopted?’ In particular, this paper compar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search issues in leading global journals and thos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Korea Trade Review*. In addition,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ould be suggested regarding what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studies will be meaningful to be published in the *Korea Trade Review*.

Keywords: *Korea Trade Review*, International Management, Critical Review

JEL Classifications: M10, M16

* The authors would like to thank Prof. Kim, Hag-Min, Yeo, Taek-Dong, and Chung, Yong-Kyun, and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beneficial advice. Both authors contributed to this study with the same intensity of effort.

^a Corresponding Author, E-mail: kkh1212@smu.ac.kr

^b Co-Author, E-mail: jhkwon@jangan.ac.kr

© 2020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무역학회지 (*Korea Trade Review*)”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 학술지 가운데 하나이다. 1975년 “무역학회지”가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무역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국제경영 (international management) 역시 무역학 분야 연구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대표하는 2개의 학술지 즉, “국제경영연구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와 “국제경영리뷰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가 창간되기 훨씬 전부터 “무역학회지”에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이 게재되어 왔다(Kwon Ki-Hwan, 2014).¹⁾ 이 점에서 “무역학회지”를 한국 국제경영 분야 연구와 관련된 원조 학술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연구 논문들 가운데 국제화,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 경영 등 국경을 넘어 수행되는 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세부 주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는 연구 성과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언제 처음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성과가 “무역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는가?’, ‘국제경영 분야의 논문들이 “무역학회지”에 얼마나 빈번하게 게재되었는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주로 어떠한 주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논문들에서는 어떠한 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해 왔는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에서

는 무역과 국제경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본 논문이 채택하고 있는 분석 체계에 대하여 정리해볼 것이다. 국제경영 분야에 대해 세분화를 시도했던 기존 연구들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 국제경영 분야를 몇 개의 세부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는지 제시할 것이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각 세부 연구 영역별로 학술적 혹은 실무적으로 나름 의미를 지닌 일부 연구들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무역학회지”를 무대로 펼쳐진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을 짓고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II. 무역과 국제경영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무역과 국제경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역이 국제경영의 전제 조건이며 국제경영이 무역 확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경영 분야는 무역학 연구를 구성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국제경영의 전제 조건으로서 무역

국제경영이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을 지칭한다.²⁾ 그런데 마은

1) “국제경영연구(*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는 1990년 한국국제경영학회에서 창간하였으며, “국제경영리뷰(*International Business Review*)”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에서 1997년 창간하였다.

2) 국제경영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도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Cho Dong-Sung (2001)은 국제경영을 “국경선을 넘어서거나 2개 국가 이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영 활동”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Kang Tae-Goo (2002)는 국제경영을 “재화, 서비스, 기술, 자본, 인력, 정보 등을 포괄하며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사적 사업 활동”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Hill (2011)은 국제경영을 “국제적인 무역이나 투자에 관련된 경영 활동”이라고 지칭한 바 있고, Cavusgil,

먹는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사업을 여러 국가에서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업가정신(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관련 일부 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제경영 논의들에서는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어느 정도 축적된 이후에야 기업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외직접투자, 글로벌 제휴, 본사-자회사 공동 연구개발, 혹은 관리자 현지 파견 등과 같은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행적인 경험과 지식이란 일반적으로 수출 혹은 수입 활동을 통해 해당 기업이 획득한 현지 관련 고객, 유통, 물류, 시장, 경쟁, 문화, 언어, 제도, 정책, 법률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수출 혹은 수입은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현지 법인 설립, 글로벌 인수합병 등 여타의 국외 시장 진입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여타의 국외 시장 진입 방식에 비해 수출 혹은 수입은 상당한 규모의 투자나 몰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측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나 위험 역시 적은 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본격적인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업은 무역을 구성하는 기본 활동, 즉 수출과 수입을 통해 현지와의 다양한 거리를 좁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무역은 국제경영의 전제 조건이다.

2. 무역 확대의 촉매제로서 국제경영

국경을 넘어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을 지속해 나갈수록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경영 활동의 폭, 깊이, 그리고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사업에서의 지식

이 축적되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진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기능 활동의 다양성이 커지며, 사업의 계열 구조가 심화되고, 복잡한 전략적 선택을 신속하게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 경영자가 등장하게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서의 특성과 면모를 공고히 구축하게 된다.

독립적 수출 혹은 수입 활동을 수행하는 개별 기업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 조직 구조, 그리고 관리 시스템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을 구성하는 본사와 현지 자회사 사이에서 혹은 현지 자회사들 사이에서 제품, 서비스, 기술, 자금, 천연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의 이동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본사 혹은 현지 자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더 많은 수의 협력 기업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채로운 거래와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화는 이러한 거래와 이동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제경영 활동의 폭, 깊이, 그리고 속도가 증가할수록 무역 규모의 확대, 무역 빈도의 증가, 그리고 무역 대상의 다양화 등을 유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국제경영은 무역 확대의 촉매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무역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Ⅲ. 분석 체계

학술지 게재 논문들을 어떠한 분류 체계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는 비판적 문헌 고찰의 진행 과정 및 성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세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이슈를 중심

Knight, Riesenberger, Rammal, and Rose (2014)는 국제경영을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거래 및 투자 활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Table 1. Specified Research Areas of International Management Field

	Specified Research Area	Abbreviation Notation
(1)	Global Business Environment	GBE
(2)	Internationalization	INT
(3)	Entry Mode	ETM
(4)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5)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JV
(6)	Strategic Alliances & Networks	SAN
(7)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nagement	MCM
(8)	Headquarter-Subsidiary Relations	HSR
(9)	Transfer of Knowledge	TOK
(10)	International Finance	IF
(11)	Global Top Management	GTM
(12)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IHM

으로 어떻게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세부 연구 영역 도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주제를 몇 가지로 세분화 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Oesterle and Wolf, 2011; Pisani, 2009).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국제경영 분야의 미래 연구 영역을 개념적으로 체계화 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수행된 바 있다(Reiche, Lee, and Allen, 2019; Buckley, Doh, and Benischke, 2017; Doh, Luthans, and Slocum, 2016; White III, Guldiken, Hemphill, He, and Khoobdeh, 2016).

대표적인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Ricks, Toyne, and Martinez (1990)에서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8 가지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를 전략, 구조와 통제, 조직 행동, 인적 자원 관리, 생산 관리, 기업-정부 관계 관리, 정보/기술 이전, 그리고 참여(개입)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국제경영 분야의 대표적 국제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에서는 어떤 주제의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텔파이 조사와 문헌 분석을 광범위하게 수행했던 Wright and Ricks (1994)에서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를 6가지 주제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에 대해 국제경영 기업의 전략과 목표, 국제경영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영향, 국제경영 기업의 관리와 관련된 국가 문화 간 관련성, 국제경영 기업의 관리적 성과, 국제경영에서의 정보 이전,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조직과 유효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

Pisani (2009)는 가장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주제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 Werner (2002)의 논문을 강조한 바 있다. Werner (2002)에서는 국제경영 분야를 12 가지 세부 연구 영역으로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화, 진입 방식, 국제 합작 투자, 해외직접투자, 국제 거래, 지식이전, 전략적 제휴와 네트워크, 다국적기업 경영, 본사-자회사 관계, 자회사와 본사의 경영진 관리, 그리고 현지 파견자 및 인적자원관리로 정리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 가운데 Werner

(2002)에서 제시한 분류 체계를 기본적으로 채택하였다. Werner (2002)에서 제시된 12 가지 세부 연구 주제들은 후속 연구들에서도 빈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이면서 최근의 국제경영 현상들을 상당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Werner (2002)가 강조한 바 있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거래 영역을 제외하고 외환, 환율, 환위험, 국제 조세 및 지불 관련 국제 재무를 국제경영 분야의 하위 연구 영역으로 추가하였다.³⁾

2. 분석 방법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문헌고찰과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 도출을 더욱 의미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게재된 개별 논문들이 국제경영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연구 영역들에서 어떤 세부 영역과 관련된 연구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첫째, 각 연구자가 국제경영 분야 연구의 세부 영역을 규정할 기존 문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앞서 설명했던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을 12 가지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각각이 논문 제목, 주제어, 요약문, 연구 가설 또는 명제,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별 논문들의 세부 연구 영역을 1차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게재 논문들은 연구자들 간 견해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자 간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일부의 게재 논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자 각각이 본인의 1차 분석 과정과 결론에 관하여 설명한 이후에 공동으로 다시

합의하여 해당 논문의 세부 연구 영역을 확정하였다. 특히, 게재 논문이 복수의 국제경영 분야 세부 연구 영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파악하고자 연구자 간 논의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을 저자, 발간 연도, 제목, 세부 연구 영역,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이 “무역학회지”에 얼마나 빈번하게 게재되었는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은 주로 어떠한 세부 연구 주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은 어떤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 가운데 12가지 세부 연구 영역별로 좀 더 특별한 의의와 시사점을 지닌 논문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다.⁴⁾

무엇보다도,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무역학 분야 연구의 중심 축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경영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IV. 분석 결과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창간 이래로 2019년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 시기별 연구 동향, 그리고 세부 연구 영역별 연구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3) 이와 관련하여, 무역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접 학문 분야와의 관계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무역학회지” 메타 분석에서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 마케팅을 무역학 연구의 중요한 독립 연구 주제로 상정한다 (Kwon Ki-Hwan, 2014).

4) 세부 연구 영역별 관심 논문 선정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게재 당시 연구 주제의 중요성, 연구 내용의 시의성, 무역 관련 연계성, 그리고 방법론 관련 체계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1. 연구 동향

1) 전반적인 동향

1975년 창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의 전반적인 게재 추이를 정리해보면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2019년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수출입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338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경영 분야의 12개 세부 연구 영역들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게재된 영역은 모두 59편의 논문이 게재된 해외직접투자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드물게 게재된 영역은 모두 6편의 논문이 게재된 글로벌 경영진 영역이었다.

2019년 모두 31편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이 게재된 것과는 달리, 1975년 “무역학회지” 창간호에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이 게재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338편 가운데 “무역학회지”에 최초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이 게재된 것은 이듬해인 1976년이었다. 당시 게재된 논문은 중앙대학교 한주섭 교수가 저술한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Its Characteristics”였다 (Han Joo-Sup, 1976).⁵⁾

해당 논문에서는 1970년대 들어오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다국적기업의 특징, 즉 기원, 개념, 진화 패턴, 그리고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속성 등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다. 당시 한국 경영학계에 다국적기업 개념 자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선도적인 연구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Kwon Ki-Hwan, 2014).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경영 분야의 12개 세부 연구 영역들 가운데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화, 진입 방식,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영역에서 전체 게재 논문들 가운데 15% 내외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다국적기업경영, 국제 재무, 그

리고 국제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전체 게재 논문들 가운데 5~10% 수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반면에 국제합작투자, 본사-자회사 관계, 지식 이전, 그리고 글로벌 경영진 영역에서는 전체 게재 논문들 가운데 5% 미만의 소수 논문만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많은 연구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시기별 동향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의 시기별 “무역학회지” 게재 흐름을 파악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개척기이다. 개척기는 창간 이후부터 1990년까지 15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이 시기 동안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무역학회지”에 0.75편이 게재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성장기이다. 성장기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이다. 이 시기 동안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무역학회지”에 해마다 평균적으로 5.6편이 게재되었다. 가장 최근의 마지막 시기는 발전 가속화기이다. 발전 가속화기는 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2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이다. 이 시기 동안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무역학회지”에 14편이 게재되었다.

3) 연구 방법 동향

본 논문에서는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과거 발표된 통계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재구성하여 논의 전개를 위한 증거로 제시하는 기초 자료 분석 (basic data analysis)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한 계량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이다. 세 번째는 과정 중심적인 특성을 시도하기 위하여 관찰이나 인터뷰 혹은 사례 연구 등을 활용한 질적 분석

5) 해산 한주섭 교수는 2020년 여름 타계하셨다.

Table 2. Publication Trend of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Trade Review"

	(1) GBE	(2) INT	(3) ETM	(4) FDI	(5) IJV	(6) SAN	(7) MCM	(8) HSR	(9) TOK	(10) IF	(11) GTM	(12) IHM	Total
1975													
1976							1						1
1977													
1978													
1979													
1980													
1981				1								1	2
1982										1			1
1983													
1984									1				1
1985							1						1
1986				1									1
1987									1				1
1988					1								1
1989													
1990		1	1										2
1991								1		1		1	3
1992		1			1								2
1993	1	1	3	2									7
1994	1	1	1	3									6
1995	4	1	3	2									10
1996	2		2	1									5
1997		1	2	1		1							5
1998		1	1					1					3
1999			2	3			1	2					8
2000	1		3	1		1				2			8
2001	2	1	2	1	1		1						8
2002	3	1	1			1					1		7
2003	1	1		2	1	1	1						7
2004	1	1	3	1		2			1	1			10
2005	1				2	1	2		2	2			10
2006	1	4	1		1					2			9
2007	1	2	4	2	2	1		1	1		1		15
2008	1	3	4	1	2	1			1			1	14
2009	2	2	4	1		1	1	1		1	1		14
2010	3	6	1	2	1		2		3	1	1		20
2011	3	1		5		1	1			3		1	15
2012	2	1		1		2	1	1	1	1	1	1	12
2013		8	2	2			3	3		2		2	22
2014	2	5		3		1				1		1	13
2015	3			3		1	1			2		2	12
2016	3	1	1	4			1	1	1	1	1		14
2017	3	2	1	2		1	1		1	4		2	17
2018	1	3	1	4		2	3			5		1	20
2019	5	4		10		1	4	1				6	31
Total	47	53	43	59	12	19	25	12	13	30	6	19	338
Ratio (%)	13.9	15.7	12.7	17.5	3.6	5.6	7.4	3.6	3.9	8.9	1.8	5.6	100

* GB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NT: Internationalization, ETM: Entry Mode,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IJV: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SAN: Strategic Alliances & Networks, MCM: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nagement, HSR: Headquarter-Subsidiary Relationships, TOK: Transfer of Knowledge, IF: International Finance, GTM: Global Top Management, IHM: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Table 3. Research Method in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Basic Data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Conceptual Analysis	Mixed Analysis	Total
Frequency	5	267	28	29	9	338
%	1.5	79.0	8.3	8.6	2.7	100

(qualitative analysis)이다. 네 번째는 주요 개념의 정리 및 새로운 연구 주제의 도출을 지향하는 개념 분석 (conceptual analysis)이다. 다섯 번째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결합하여 연구를 수행한 복합 분석 (mixed analysis)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서 주로 활용 및 적용되어 온 연구 방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은 <Table 3>과 같다.

전술한 연구 방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어 온 것은 계량 분석이다.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 가운데 79%가 계량 분석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질적 분석과 개념 분석 방법이 일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빈도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초 자료 분석은 2000년대 이전에 주로 활용되었으며, 완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복합 분석은 2000년 이후 일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부 연구 영역별 주요 내용

여기서는 국제경영 분야의 12개 세부 연구 영역별로 “무역학회지” 게재 논문들에 대한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특히, 선도적인 글로벌 학술지에 나타난 국제경영 분야의 최근 연구 흐름과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세부 영역별 연구 논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 분석하였다.⁶⁾

6)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논문이 게재된 선도적인 글로벌 학술지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Journal of*

1) 글로벌 경영환경

글로벌 경영환경이란 기업의 국제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범세계적 차원의 외부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통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전략 및 기능 차원에서 빈번하게 경영 관련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위험을 현실화 시킨다.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국제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환경의 주요 내용과 영향의 결과는 무엇인지, 산업 및 경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정치, 정책 관련 환경 변화가 유발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Aguilera and Crespi-Cladera, 2016; Boddewyn, 2016; Hutzschenreuter, Kleindienst, and Lange, 2016).

지난 40여 년 간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글로벌 경영환경 관련 47편의 논문들 역시 시장 개방, 국가 문화 차이, 기후 변화, 사회적 책임, 그리고 중국 등 신흥 시장의 급부상 관련 의미와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본국인 한국의 거시적 환경 특성과 제도적 변화 방

International Management, *Global Strategy Journal*, *International Trade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Organization Science*, *Journal of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Research Policy*, *Long Range Planning*,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Journal of Finance*, *Decision Science*, 그리고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 등을 검토하였다.

Table 4.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Chi Sung-Pyo (2002)	US, other poor countries	Game tree analysis	Identif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environment as changes in the global game model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Kim Soon-Woo, Kim Byoung-Goo, and Lee Chun-Su (2011)	159 Companies in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Survey, Regression	Market environment, CEO, corporate characteristics affect the build of Guanxi in China, but costs are incurred
Kim Min-Hee, Kim Min-Ho, and Oh Han-Mo (2016)	389 University students in Jeollabuk-do	Experimental design, T-test	University student consumers prefer fair trade products to general products, and they want to pay a premium price for fair trade certified products
Ha Hong-Youl (2019)	254 Chinese Consumers use Korea cosmetics	Survey, SEM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love for the brand on customer loyalty and the moderated effect of shopping value and gender difference and presentation of target market segmentation

향에 관하여 다루기도 하였다.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부정부패, 사회적 책임, 국가 혁신 정책 등 최근 들어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제도적 혹은 정치적 환경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Cuervo-Cazurra, 2016; Kolk, 2016; Kostova et al., 2020).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글로벌 경영환경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4>와 같다.⁷⁾

2) 국제화

국제화란 기업이 본국 국경을 넘어 본국이 아닌 여타의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국경을 넘는다는 측면에서 국제화란 한편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국제화에 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국제화를 유발하는 동인, 조기 국제화 등 국제화가 추진되는 과정 측면의 특성, 국제화와 상호작용하는 요인, 수준이나 범위 혹은 속도와 관련한 국제화 관련 측정 이슈, 그리고 국제화로 인한 미시적 혹은 거시적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Paul and Sánchez-Morcilio, 2019; Beugelsdijk et al., 2018; Reuber et al., 2018).

창간 이래로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화 관련 53편의 논문들 역시 국제화 영향 요인, 국제화 관련 조절 변수, 국제화에 따른 경영 성과, 기능 차원의 국제화, 그리고 신흥 시장으로의 국제화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국제화 동인으로서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의 중요성,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간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파악하기도 하였다.

국제화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산업 간 국제화 차이, 국제기업가정신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 국제화의 질적 성과 파악, 그리고 디지털화를 반영한

7) 지면상의 제약과 저자들의 능력 부족으로 의미있는 모든 논문을 다 소개하지는 못했음을 밝힌다.

Table 5.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ization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won Ki-Hwan (2006)		Conceptual analysis	Proposing criteria as strategic similarities for similarity of management environment, exploitation of existing resources and capabilities, and the possibility of creating new resources and capabilities at each decision stage
Ban Hye-Jung (2010)	KIS-VALUE, Internet, and newspaper data of 289 companies in KOSPI	Regression	Investment propensity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degree of globalization, but geographic and business diversification have a negative moderated effect
Hwang Kyung-Yun and Cho Dae-Woo (2013)	KIS-Value data of 867 export-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in KOSPI or KOSDAQ	Regression	Innovative activities need to be carried out consistently in order to facilitate manufacturers' entry into overseas markets
Choi Yu-Ri and Bang Ho-Yeol (2019)	150 companies listed in the KORCHAM and the KVBA	Survey, SEM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globalization opportunities (exploration: innovation, financial transactions, exploitation: attractive, efficient) affect the performance of globalization

국제화 이론 재구축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Gulanowski, Papadopoulos, and Plante, 2018; Kriz and Welch, 2018; Knight and Liesch, 2016; Johanson and Vahlne, 2009).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화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5>와 같다.

3) 진입 방식

진입 방식이란 본국이 아닌 여타의 국가 시장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식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세 가지 진입 방식, 즉 수출입 방식, 계약에 의한 방식, 그리고 직접투자에 의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입 방식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진입 방식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입 방식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분 구

조와 진입 방식 간의 관련성, 그리고 진입 방식과 조직 요소 간의 적합성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Zhao, Ma, and Yang, 2017; Klier et al., 2017; Shen, Puig, and Paul, 2017; Dikova and Brouthers, 2016).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진입 방식 관련 43편의 논문들 역시 진입 방식 선정 관련 기업 내외부의 영향 요인, 산업별 진입 방식의 특성, 진입 시장에서의 경쟁 방식,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주요 신흥시장 관련 진입 방식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진입 방식 관련 정책 지원의 영향,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살펴 보기도 하였다.

진입 방식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진입 방식 결정 프로세스, 신흥 시장 진입 방식의 특성, 그리고 인지 혹은 행위 관련 특성을 반영한 진입 방식 이론 재검토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Table 6.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Entry Mod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Lee Cheong-A and Bang Ho-Yeol (2008)	93 companies listed in the KITA	Survey, Moderated logistic regression	Cultural factors as well as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e the choice and performance of the approach in selecting the overseas market entry mode
Rhee Dong-Kee, Park Chul-Hyung and Cho Young-Gon (2009)	Business reports of 186 companies listed on KOSDAQ	Logistic regression	Companies prefer independent investment than joint ventures in open culture because the open local culture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market development and successful entry
Kang Tae-Koo and Choi Sung-Uk (2012)	130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KOTRA's Foreign Investment Directory	Survey, Regression	The more experience in overseas business, the more asset specificity, and the higher knowledge intensity, the more incremental entry mode such as exports
Han Byoung-Sop and Park Eun-Kyoung (2016)	1610 M&As from Chinese Companies in Zepyr DB by Bureau Van Dijk	Probit analysis	Reduces the likelihood of M&A failures for participating companies with diverse nationalities, identical industries, and target countries

있을 것이다(Stefano, Larsen, and Piscitello, 2019; Schwens et al., 2018).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진입 방식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6>과 같다.

4)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란 경영 지배를 유지하며 본국이 아닌 여타 국가로 자본, 노동, 기술, 설비 등 다양한 경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크게 혹은 내부개발 방식 혹은 인수합병 방식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O-LI 패러다임과 내부화 이론을 논의의 전개의 근간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영향 요인, 해외직접투자의 시기, 해외직접투자 입지 선정, M&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해외투자철수 유발 요인, 그리고 본국 및 투자 대상국 관련 해외직

접투자의 성과 및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 (Paul and Feliciano-Cestero, forthcoming; Paul and Benito, 2018; Erel, Liao, and Weisbach, 2012; Fetscherin, Voss, and Gugler, 2010; Buckley and Casson, 2009; Dunning, 2000).

창간부터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해 외직접투자 관련 59편의 논문들 역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동인, 한국 기업의 신흥 시장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재무적 성과, 경제 성장이나 혁신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활성화 시키는 동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의 정책 및 제도적 특성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으로의 투자 철수 동인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지식 활용 및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도 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Table 7.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ang Seok-Min and Seo Min-Kyo (2011)	118 panel data for 2001, 2003 and 2005 of 50 countries	Regression	Religion-related regulations in local countries have been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FDI by U.S. companies
Park Jung-Min, Song Yun-Ah, and Lee Jae-Eun (2013)	M&A data in Thomson Financial' s SDC Platinum, 335 FDI firms listed in FDI Directory of Export-Import Bank of Korea	Survey, Regression	The higher the similarity of management style and organizational culture between acquiring firm and acquired firm, the higher the speed of integration after acquisition
Han Byoung-Sop (2015)	'89~'10 data in DB of The Export · Import Bank of Korea, CEI's DB of China, etc.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Tobit regressi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egal practice have a positive impact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and attract active investment
Ryoo Sung-Woo and Mun Cheol-Ju (2019)	'05~'16 oFDI data from 270 state owned and 143 private companies in China	Regression	Foreign investment in Korea's electricity sector in 7 of the 16 regions and carbon emissions in the region were causal
Li Jia-En, Yin-Ling, and Choi Young-jun (2019)	World Bank DB 112개 자료 '90~'17 World Bank DB 112 data	Regression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FDI on the trade interests of each country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value chain (GVC) was positive

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L-L-L 모형이나 Springboard 모형의 적용 가능성, 신흥시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성,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지역 혹은 도시를 대상으로 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디지털화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hen and Puig, 2018; Buckley, 2016; Jain, Kothari, and Kumar, 2016).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해외직접투자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7)과 같다.

5) 국제합작투자

국제합작투자란 지분을 보유한 하나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와 달리, 국제합작투자에서는 경영 지배, 사업 추진, 그리고 성과 배분 측면에서 적절한 파트너를 선정하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파트너 선정 관련 영향 요인, 합작 지분 비율 결정, 파트너 간 상호 작용 및 관계 관리, 국제합작투자와 여타 진입 방식에 대한 비교, 국제합작투자 관련 위험 요인, 그리고 국제합작투자의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Hennart, 2019; Mohr, Wang, and Goerzen, 2016; Nippa and Beechler, 2013; Beamish and Lupton, 2009).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합작투자 관련 12편의 논문들에서는 합작투자

Table 8.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Song Yun-Ah et al. (2008)	Companies listed in Euro & Korea Data Bank	Survey, Regression	Transaction-relationship capital are more important than transaction-specific capital when making international joint investments in Korea
Lee Chol and Park Chan-Soo (2010)	334 Companies listed in Ministry Knowledge Economy	Survey SEM	Reduced conflicts and cooperation between partners in international joint investment promote knowledge transfer rather than trust and commitment

법인의 지분 구조와 경영 지배, 합작투자법인의 성과 창출 동인, 합작투자법인 관련 통제, 합작투자 파트너 간 관계 활성화, 그리고 합작투자의 종결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국제합작투자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다수 기업 참여의 영향, 합작투자법인 설립 과정, 합작투자법인 내부 경영 프로세스, 합작투자법인 설립 혹은 청산 관련 시기 결정, 그리고 합작투자법인의 후속 성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ong, forthcoming; Nippa and Reuer, 2019; Pisani, Caldart, and Hopma, 2017).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합작투자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8>과 같다.

6)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전략적 제휴란 직접적인 지분 투자 없이 하나 이상의 파트너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파트너가 협력 관계에 참여하여 제휴의 양상이 중층적 혹은 복합적일 경우, 이를 네트워크라고 지칭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제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 지식 수준이나 경쟁 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의 결과, 전략적 제휴

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네트워크적 속성을 지닌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Contractor and Reuer, 2019; Hoffmann et al., 2018; Balachandran and Hernandez, 2018; Beamish and Lupton, 2016; Kale and Singh, 2009).

창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관련 19편의 논문들 역시 제휴 성과 창출 동인, 제휴 파트너 간 상호작용, 그리고 부품업체 네트워크의 영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물류 혹은 운송 분야 제휴의 특성, 환경친화적 협력 관계, 개도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제휴 참여 글로벌 파트너로부터 유래된 영향의 구체화, 기업 및 산업 차원의 가치 사슬을 글로벌 네트워크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디지털 기반 글로벌 플랫폼의 네트워크적 특성과 운영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Kano, Tsang, and Yeung, 2020; Jacobides, Cennamo, and Gawer, 2018; Gomes, Barnes, and Mahmood, 2016).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9>와 같다.

Table 9.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Strategic Alliance & Network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Han Neung-Ho and Park Myong-Sop (2011)	120 Korean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Survey, Regression	Network facilitation factors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ies affect network enhancement and then Network enhancement impacts innovation
Bae Hee-Sung and Lee Yang-Kee (2014)	219 companies listed in KITA	Survey, SEM	Environmental cooperation (internal cooperation, supplier cooperation) of Korean exporters has an impact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Kim Chang-Bong and Ding Hui-Cong (2015)	156 textile and clothing companies in Shandong Province, China	Survey, Regression	Operational and strategic partnerships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nd process innovation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al partnership and business performance
Son In-Sung and Kim Si-Hyun (2017)	556 Galaxy Note parts supplier' s stock price	AR analysis, Regression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short-term performance, but the exploration for new technologies rather than the exploitation of existing technologies has an impact on excess return

7) 다국적기업경영

다국적기업경영이란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 인 차원에서 본국과 현지국에서 수행되는 경영 활동의 최적화와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경영은 경영 활동의 범위와 성과 측면에서 국내 경영과 크게 차별화 된다.

다국적기업경영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정책 방향,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조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입지 선정 및 조정, 다국적기업의 성과와 그에 대한 복합적인 영향 요인, 다국적기업 관련 이론 체계의 강화, 그리고 신흥시장 기반 다국적기업의 경영 스타일 관련 특성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Pitelis and Teece, 2018; Hitt, Li, and Xu, 2016; Verbeke and Kano, 2016; Teece, 2014; Nachum and Song, 2011).

최근까지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 되어 온 다국적기업경영 관련 25편의 논문들

역시 한국을 본국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우위 요소와 경영 전략 및 입지 선정,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친환경 정책 혹은 윤리 경영의 영향, 경영 성과에 대한 다국적성의 영향, 중국 등 신흥 시장 진출 다국적기업의 성과, 그리고 한국 진출 다국적기업의 경영 관리 및 지식 창출 특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종합상사의 미래 성장 전략, 한국 자동차기업의 유럽 내 부품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다국적기업경영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전략 유형 재설정, 다국적기업의 고유한 본질적 역량, 현지국 제도적 환경과 다국적기업의 상호작용, 선진국 다국적기업과 신흥 시장 다국적기업 간 경쟁,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 확대 등에 간하여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Putzhammer et al., 2018;

Table 10.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MNCs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im Yong-Yul (2010)	2160 samples from the Competitive Assessment Agency (WEF, IPS)	Cluster analysis, ANOVA	Asian countries and European countries are divided into similar cultural types, and the perception of cultural differences affects business
Kim Jae-Kyung and Lee Bong-Soo (2019)	145 foreign-invested companies with R&D centers in Korea	Survey, Regression	Marketing factors have a positive impact on R&D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performance
Kim Yong-Kuk, Park Keun-Sik, and Kim Jun-Seung (2019)	5 TSR and TCR transport routes, to Korean carmakers H' s and K's subsidiaries in Europe	Interview, Scenario analysis, Minimization model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optimizing the transport routes of Korea-EU auto parts, the Russian port of St. Petersburg is the most economical transportation method in terms of total logistics costs

Kolk, 2016; Angeli and Jaiswal, 2015).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다국적기업 경영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0>과 같다.

8) 본사-자회사 관계

본사-자회사 관계란 본국에 위치한 다국적기업 본사와 현지국에 위치한 자회사 간의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계는 본사 주도, 자회사 주도, 그리고 본사 및 자회사의 공동 참여 등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범세계적 네트워크 특성이 확대될수록 본사-자회사 관계의 중요성 역시 따라서 증가한다.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현지 자회사의 역할과 영향, 현지 자회사에 대한 통제, 현지 자회사의 전략 및 조직 관련 주도권 확보, 현지 자회사의 성과와 해당 영향 요인, 그리고 현지 자회사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 (Meyer, Li, and Schotter, 2020; Nuruzzaman, Gaur, and Sambharya, 2019; O'Brien et al., 2019; Kostova, Marano, and Tallman, 2016).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본사-자회사 관계 관련 12편의 논문들에서는 현지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통제, 현지 자회사 성과 결정 요인, 현지 자회사의 전략 특성, 그리고 현지 자회사의 협상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현지 자회사의 성장과 현지 자회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현지 자회사의 다양한 성과, 현지 자회사의 역할 전환, 현지 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관점의 구조조정, 그리고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보완적 설명 논리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Schmid and Morschett, forthcoming; Burger et al., 2018; Kostova, Nell, and Hoenen, 2016).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본사-자회사 관계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1>과 같다.

9) 지식 이전

지식 이전이란 기술, 노하우, 스킬, 프로세스 등 다국적기업 지식이 본사 혹은 현지국의 자

Table 11.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MNCs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Lee Jang-Ho (2007)	102 manufacturing companies listed on KOSDAQ with overseas subsidiaries	Survey, Regression	The impact of resources, networking, strategy, contro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local subsidiaries varies by investment motivation
Shin Hyun-Kil and Park Young-Ryeol (2012)	Subsidiaries of Korean companies in China, Asia and ASEAN regions	Survey, Regression	Subjectively perceived psychological distance factors, rather than those objectively recognized by the subsidiary's manager,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ubsidiary's performance

Table 12.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Transfer of Knowledg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won Jae-Hyun, Han Chul-Hwan, and Seo Su-Wan (2010)	Korean Logistics Company in Bohai Rim Region	Case study	Korean logistics companies that have entered Bohai Rim Region share information through informal networks,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knowledge through knowledge sharing and integration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h Kum-Sik, Joh Min-Soo, and Park Byung-Il (2017)	432 Dart's data of subsidiaries of foreign companies in Korea	Survey, Moderated regression	Knowledge development capability and subsidiary willingness were found to be vital precedents for successful reverse transferring of local market information to headquarters

회사들 사이에서 옮겨가게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글로벌 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식 이전의 중요성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 이전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지식 이전에 대한 미시 혹은 거시 차원의 영향 요인, 지식 이전의 방향, 지식 이전의 유형, 그리고 지식 이전에 따른 미시 혹은 거시 차원의 결과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Cheong et al., 2019; Lind and Kang, 2017; Andersson et al., 2015; Mudambi, Piscitello, and Rabbiosi, 2014).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지식 이전 관련 13편의 논문들에서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지식 이전 성과, 조직 특성 요소가 교환이나 활용 등 지식 관리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지식 이전에 대한 본사 혹은 자회사 특성의 영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다만,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수출을 통한 무역과 지식 이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기도 하였다.

지식 이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지식 이전의 구체적 과정, 지식 이전을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부서 신설이나 이나 관리자 파견과 같은 다양한 조직화 수단의 지식 이전에 대한 영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Zhou, Fey, and Yildiz, forthcoming; Bingham et al., 2015; Raab, Ambos, and

Table 13.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 Finance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Choi Bong-Ho and Lee Gi-Whan (2015)	Maximum period of time for IFS data published by the IMF on 9 national inflation rates and nominal interest rates	Threshold co-integration test, Threshold error correction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is important in terms of the timing and strength of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in order to ensure continued growth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efficiency of international financial policies
Choi Kwang-Ho (2018)	155 exporting SMEs in Korea	Survey, Regressio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ayment characteristics, transaction items, transaction amount, and risk management factors on the credit card payment method, remittance payment method, and collection payment method of SMEs in Korea
Jung Moon-Hyun (2018)	'01~ '15, 1566 Monthly data, including statistics from the 9 East Asian countries and etc.	Pannel co-integration test, DOLS & FMOLS pannel regression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e of foreign exchange hedging increases trade because they reduce uncertainty in exchange rates, but after the financial crisis, volatility in exchange rates increases uncertainty, which negatively affects trade

Tallman, 2014).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지식 이전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2>와 같다.

10) 국제 재무

국제 재무란 외환 및 환율, 환위험 관리, 이 전 가격, 국제 조세, 다국적기업 시장 가치와 배 당 정책 및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글로벌 자금 투자 등을 포괄한다. 금융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규모와 입지가 확대 되면서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재무관리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제 재무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국제경영 활동 관련 환율의 영향 및 환위험 관리, 글로벌 금융 제도의 변화 내용 과 영향, 글로벌 금융 상품의 위험 프리미엄, 다 국적기업의 지배구조 특성과 자본 비용, 다국 적기업의 글로벌 자금 조달과 투자 위험 관리, 글로벌 조세 환경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 관리

전략, 글로벌 관점의 이전 가격 설정 및 조정, 그리고 국제 무역 금융의 유형과 활용 등에 관 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Puck and Filatotchev, forthcoming; Kohlhase and Pierk, 2020; Davies et al., 2018; Lindner, Müllner, and Puck, 2016; Song, Lee, and Makhija, 2015; Shao, Kwok, and Guedhami, 2010; Faff and Marshall, 2005).

창간 이래로 지금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 되어 온 국제 재무 관련 30편의 논문들 역시 한 국 기업의 국제 재무 위험 관리, 기업회계기준 변화가 재무 위험 관리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금리 및 환율 변동성 영향 요인, 환율 변동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투자 활동에 대한 기업지 배구조의 영향, 조세 피난처의 구조적 특성, 그 리고 신디케이트 금융 관련 위험 프리미엄 등 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 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대 금 결제방식, 한중일 국제 팩토링 비교 분석, 한 국 외국환 관련 은행의 위험 관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다.

Table 14.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Global Top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im Kyoung-Ae and Kim Joo-Tae (2010)	KIS-Value panel data of 673 Inward FDI firms in Korea	Regression	In relation to CEO replacement of inward FDI companies in Korea, CEO's nationality has some impact on corporate performance
Kim Dong-Soon and Lim Seo-Ha (2016)	KIS-Value data of 443 KOSDAQ SMEs	Regression	Relationship between compensation and overconfidence of Korean export manufacturing SMEs' CEO is positive, and CEO compens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future business performance

국제 재무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 재구조화와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략, 최적 글로벌 조세 입지 관련 전략적 대응, 금융 관련 제도적 환경의 주요 내용과 영향, 신흥 시장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자금 조달과 기업지배구조, 조세 전략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탈세 시도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Kemme, Parikh, and Steigner, forthcoming; Foss, Mudambi, and Murtinu, 2019; McGaughey and Raimondos, 2019; Cumming et al., 2017; Khelif and Achek, 2015).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 재무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3>과 같다.

11) 글로벌 경영진

글로벌 경영진이란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는 본사 경영진 혹은 현지국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선임, 육성, 보상, 이직,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 등을 포함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협력과 인수합병의 가능성 및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경영진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진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글로벌 전략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영향, 현지 자회사에 대한 최고경영진 선임 및 교체, 기업 다국적성 구성 요소로서의 최고경영진,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자산 특성, 최고

경영진 구성 측면의 다양성과 성과 간의 관계, 국제화에 과정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영향, 그리고 최고경영진의 글로벌 리더십 특성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Thams, Chacar, and Wiersema, forthcoming; Bebenroth and Froese, forthcoming; Kunisch, Menz, and Cannella Jr., 2019; Li and Lo, 2017; Bird and Mendenhall, 2016; Greve, Biemann, and Ruigrok, 2015; Hutzschenreuter and Horstkotte, 2013; Barkema and Shvyrkov, 2007).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글로벌 경영진 관련 6편의 논문들에서는 현지 자회사 CEO 선임, 수출제조중소기업의 최고경영진 보상 효과, 경영 성과 관련 외국계 투자기업 CEO 국적의 영향, 그리고 글로벌 협상가로서 최고경영진의 자질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글로벌 경영진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지 않은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다국적기업경영 관련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의 차이, 다국적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조절 효과, 현지 자회사 경영진의 기업가정신, 그리고 신흥 시장 기반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특성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arabi et al., forthcoming; Chittoor, Aulakh, and Ray, 2019; Cui et al., 2015; Hou, Li, and Priem, 2013).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글로벌 경영진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4>와 같다.

Table 15. Remarkable Research Outcomes in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a

Author (Year)	Sample	Method	Finding & Implication
Kwon Jong-Wook, Kim Hak-Cho, and Lee Ji-Seok (2013)	645 employees from companies in Korea, China, Japan, India, Philippines, etc.	Survey, ANOVA	Cultural homogeneity among Asian countries as well as cultural heterogeneity were discovered
Kang Kyung-Goo and Kim Jung-Hoon (2015)	275 teams of firms and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Regression	Political skills of the department leader affect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department members
Kim Dae-Gon and Kim Hag-Min (2019)	449 employees of export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Regression, SEM	Inclusive leadership contributes to business performance by forming an atmosphere of friendly influence within the organization

12) 국제인적자원관리

국제인적자원관리란 국경을 넘어 인적자원을 선발, 채용, 유지, 이동, 교육훈련, 보상, 승진, 그리고 이직시키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또한, 글로벌 팀의 구축과 운용, 업무 수행 관련 최선의 실행 전파, 글로벌 혹은 현지국 차원의 조직문화 관리 혹은 조직변화 관리 등을 포괄한다.

국제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선도적 학술지의 주요 연구들에서는 다국적기업 본사와 현지 자회사의 인적자원관리 실행과 영향 요인, 현지 파견자 혹은 본사 복귀자 관리, 현지 채용인 관리 및 절차적 공정성, 경영 성과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의 영향, 그리고 다국적팀 관리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왔다(Reiche, Lee, and Allen, 2019; Caligiuri and Bonache, 2016; Cascio and Boudreau, 2016; Tung, 2016).

창간부터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인적자원관리 관련 19편의 논문들 역시 다국적기업 구성원의 조직 및 리더 관련 인식과 태도, 인적자원 현지화의 특징과 영향, 파견 관리자의 현지 적응, 경영성과에 대한 인적자원의 영향, 그리고 중국 기업 근로자의 조직 관련 인식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한편,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서는 한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변화, 외국

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문화 적응 등을 살펴볼 수도 하였다.

국제인적자원관리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연구 흐름을 반영하여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국제인적자원관리 간의 합치성, 지식 이전 혹은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국제인적자원관리의 영향, 현지 파견자의 성과 구체화, 신흥 시장 기반 다국적기업의 국제인적자원관리 특성, 글로벌 인재의 이동과 영향, 그리고 다국적팀 관리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Kawai and Chung, 2019; Santistevan and Josserand, 2019; Takeuchi, Li, and Wang, 2019; Meyer and Xin, 2018).

최근 들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국제인적자원관리 분야 논문들 가운데 관심을 끄는 일부 논문들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Table 15>와 같다.

V.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앞서 창간 이후부터 최근까지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관하여 세부 연구 영역별로 정리하고, 세부 영역별 글로벌 연구 흐름과 비교해 보았으며,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지

는 부분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을 것인지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1. 무역과의 관련성 강화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독립된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그리고 설명 논리 체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영 분야 연구는 자체적인 패러다임 하에서 수행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무역학회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무역과의 연결 고리가 반영되고 있거나 혹은 부각될 수 있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역과의 연결고리란 국제경영 이외의 다양한 무역학 분야와의 인과적 관련성 혹은 상호작용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무역 정책이 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혹은 무역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국제경영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등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

최근 들어 다양한 변화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미래 기술의 상업화 진전, 저성장의 보편화, 지역 간 전염병 확산, 국가 간 갈등의 심화, 확대되는 반글로벌화 논의, 그리고 국제기구의 주도권 약화 등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미래 변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국제경영에 대한 미래 변화의 영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변화에 대한 국제경영의 영향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지역 간 전염병 확산이나 반글로벌화 (anti-globalization) 분위기의 확대가 기업 국제경영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국제경영 활동의 활발한 전개가 미래 기술

상업화의 정도, 저성장의 가속화 지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화 혹은 다국적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국제 신규 벤처 (international new venture) 및 태생적 글로벌 (born-global) 현상의 보편적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다국적기업 (micro-Multinational)의 등장이나 태생적 디지털 (born-digital) 현상의 글로벌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won Ki-Hwan, 2008/2018).

3. 연구 방법의 다변화

무역학 분야에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가 발전 가속화 시기로 접어들면서 “무역학회지”에 게재되고 있는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 역시 엄밀성을 더해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었던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 94편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87편이 계량 분석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발전 가속화 시기에 부합하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경영 분야는 앞으로 더욱 새롭고 다양한 연구 주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설명 논리의 도출이나 기존 설명 논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수불가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밀한 계량 분석 못지않게 더욱 현실 지향적인 질적 연구와 더욱 통합적인 개념 분석이 국제경영 분야 연구에 접목될 필요가 있다 (Kwon Ki-Hwan, 2007; Kwon Ki-Hwan and Lee Choon-Woo, 2008).

이와 관련하여, 국제 신규 벤처의 국외 진출 동인과 성과 창출 원동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Oviatt and McDougal (1995)의 다중 사례 연구와 신흥시장 기반 다국적기업의 환경, 전략, 핵심역량, 그리고 사업 추진 및 성과 창출 방식을 규정했던 Luo and Tung (2007)의 개념적 연구가 보여준 논리적

타당성과 시기 상 적절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기존 연구의 보완 및 심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국제경영 분야에는 여전히 기존 연구를 보완하거나 심화시켜 나아가 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연구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수행되지 않았던 국제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본사-자회사 관계, 지식 이전, 글로벌 경영진, 그리고 국제인적자원관리 등의 세부 연구 영역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임면과 경영진의 구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본사 관리자의 현지 자회사 경영자로의 파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제3국 관리자 혹은 조직 외부 관리자의 현지 자회사 경영자로의 파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현지 자회사 경영자의 사퇴 혹은 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사 경영진의 변화가 현지 자회사 경영진의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현지 자회사 경영진에서 본사 파견 경영진, 현지 출신 경영진, 혹은 제3국 출신 경영진의 비중이 현지 자회사 운영과 성과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진 사이의 차이 혹은 다양성이 현지 자회사의 성과 창출과 성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본사 경영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지 자회사 경영진 임면이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화, 진입 방식, 해외직접투자, 다국적기업 경영, 국제 재무 등의 세부 영역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있는 연구의 가능성이 제

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영환경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제도적 환경의 차이에 집중하는 최근의 흐름에 더하여 기술 변화와 정치 환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Kwon Ki-Hwan, 2018).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AI, Big Data, Block Chain, Robotics, 5G, 그리고 3D Printing 등이 기업의 국제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국제경영과 무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확대, 중국의 부패 척결 노력, 상당 수 신흥시장의 정치적 불안정 심화, 성장 신흥시장의 독립 노선 추구, 글로벌 팬데믹에 대한 국가별 상이한 대응,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 등이 기업의 국제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국제경영과 무역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 노력들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국제경영 이론에 대한 탐색 및 정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야 할 것이다.

5. 내부 영역 간 상호작용

복잡한 현실 세계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의미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각들을 결합시키거나 제3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경영 분야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경영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연구 영역 간의 결합 가능성에 관하여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제경영 분야의 세부 연구 영역 간 결합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란 글로벌 경영환경, 국제화, 진입방식 등등 앞서 살펴본 12개 세부 영역들 간의 인과 관계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이 해당 기업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

는 단편적 가설만을 검증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과 해당 기업의 수출 성장 간 긍정적 관계를 기업의 국제협작투자 경험이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조절 효과 가설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지 출신 경영진 선임이 신흥시장 현지 사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일차원적 가설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현지 출신 경영진 선임이 신흥시장 현지 전문가에 대한 채용의 확대와 현지 자회사의 외부 제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현지 사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매개 효과 가설에 관하여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외부 연구 영역과의 결합

연구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국제경영 분야와 여타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국제경영 분야와 여타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란 국제경영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함에 있어서 국제경영 분야의 기존 이론들만이 아니라 경영학의 여타 분야 혹은 여타 학문 분야의 이론들을 원용하거나 국제경영 분야 이론들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의 의지, 기업의 핵심역량, 현지 시장의 매력도 등을 진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파악했던 기존 주장들과 달리, 기업가정신 분야에서 최근 들어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가적 기회 관리(entrepreneurial opportunity management)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지국 시장 진출에 관한 새롭고 보완적인 설명 논리를 구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Ardichvili, Cardozo, and Ray, 2003; Eckhardt and Shane, 2003; Shane and Venkataraman, 2000; Short et al., 2010).

구체적으로, 기업가적 기회 인지 및 창출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에서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업 기회를 구체적인 수익 확보 가능성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회 관리의 과정 측면을 부

각시키고 있다(Kwon Ki-Hwan and Kwon Ki-Hoon, 2011; Hong Tae-Wha, Choi Young-Jun, and Kwon Ki-Hwan, 2010). 여기서 기회 관리의 과정이란 기업가의 인지, 발견 혹은 창조를 통한 기회 확인 단계, 기회 개발 및 구조화 단계, 구조화 된 기회에 대한 평가 단계, 그리고 후속 의사결정을 위한 피드백 단계의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기회 관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점 요인으로 기업가적 촉각(entrepreneurial alertness)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가적 촉각이란 언제, 누구와 함께, 예상되는 사업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원 투입으로, 어떤 유형의 고객 가치를 구체화하여, 어떤 고객들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제공할 것인지 등에 관한 기업가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를 지칭한다(Kirzner, 1979; McMullen and Shepherd, 2006; Tang, Kacmar, and Busenitz, 2012). 그리고 기업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으로 창의성이나 긍정적 사고와 같은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업종 근속이나 시장 참여 경력 혹은 고객 대응 노하우와 같은 기업가의 과거 비즈니스 경험, 그리고 동료 집단의 유형이나 참여 커뮤니티의 전문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적 기회 관리 논의에 따르자면, 현지국 시장 진출은 특정 시점에서의 몇 가지 독립 변수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 수립된 전략 계획과 새롭게 추가된 전략 실행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적으로 구조화되어 가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연속적 과정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학이론, 국제정치학이론, 역사철학이론 등의 국제경영 분야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역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75년 창간 이후부터 2019년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는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국제경영 분야를 12개 세부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경영 분야의 연구 성과가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시기, 국제경영 분야의 논문들이 “무역학회지”에 게재된 빈도, “무역학회지” 게재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의 세부 연구 주제, 그리고 “무역학회지” 게재 국제경영 분야 논문들의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등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비판적 문헌 고찰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영 분야의 선도적인 글로벌 학술지에 나타난 최근의 연구 흐름과 “무역학

회지”에 게재된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연구 주제 및 내용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지난 40여 년 동안 “무역학회지”에 게재되어 온 국제경영 분야 연구 논문들에 대한 비판적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i) 무역과의 연계성 강화, (ii)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연구, (iii) 연구 방법의 다변화, (iv) 기존 연구의 보완 및 심화, (v) 국제경영 세부 연구 영역 간 상호작용, 그리고 (vi) 국제경영 이외 외부 연구 영역과의 결합 등을 국제경영 분야의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References

- Aguilera, R. V. and R. Crespi-Cladera (2016), “Global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evance of Firms’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50-57.
- Andersson, U., A. Gaur, R. Mudambi and M. Persson (2015), “Unpacking Inter-Unit Knowledge Transfer in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Strategy Journal*, 5(3), 241-255.
- Angeli, F and A. K. Jaiswal (2015), “Competitive Dynamics between MNCs and Domestic Companies at the Base of the Pyramid: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Long Range Planning*, 48(3), 182-199.
- Ardichvili, A., R. Cardozo and S. Ray (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105-123.
- Bae, Hee-Sung and Yang-Kee Lee (2014),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ollaboration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Korean Exporters”, *Korea Trade Review*, 39(5), 233-258.
- Balachandran, S. and E. Hernandez (2018), “Networks and Innovation: Accounting for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Sources of Recombination in Brokerage Triads”, *Organization Science*, 29(1), 80-99.
- Ban, Hye-Jung (2010), “Investment Propensity and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of Korean Companies: Focused on Operational Diversification and Geographical Diversification”, *Korea Trade Review*, 35(4), 133-156.
- Barkema, H. G. and O. Shvyrvkov (2007), “Does Top Management Team Diversity Promote or Hamper Foreign Expans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8(7), 663-680.
- Beamish, P. W. and N. C. Lupton (2009), “Managing Joint Venture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3(2), 75-94.
- Beamish, P. W. and N. C. Lupton (2016), “Cooperativ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and Management: Reflections on the Past 50 Year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63-175.
- Bebenroth, R. and F. J. Froese (forthcoming), “Consequences of Expatriate Top Manager Replacement on Foreign Subsidiary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 Beugelsdijk, S., T. Kostova, V. E. Kunst, E. Spadafora and M. Van Essen (2018), “Cultural Distance and Firm Internationalization: A Meta-Analytical Review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Management*, 44(1), 89-130.
- Bingham, C. B., K. H. Heimeriks, M. Schijven and S. Gates (2015), “Concurrent Learning: How Firms Develop Multiple Dynamic Capabilities in Parallel”,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6(12), 1802-1825.
- Bird, A. and M. E. Mendenhall (2016), “From Cross-Cultural Management to Global Leadership: Evolution and Adaptat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15-126.
- Boddedwyn, J. J. (2016), “International Business-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1945-2015: Concepts, Typologies, Theories and Methodolog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0-22.
- Buckley, P. J. (2016), “The Contribution of Internalisation Theory to International Business: New Realities and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74-82.
- Buckley, P. J. and M. C. Casson (2009), “The Internalisation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Review of the Progress of a Research Agenda after 30 Yea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9), 1563-1580.
- Buckley, P. J., J. P. Doh and M. H. Benischke (2017), “Towards a Renaissance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Big Questions, Grand Challenges, and the Future of IB Scholarship”,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8(9), 1045-1064.
- Burger, A., B. Jindra, P. Marek and M. Rojec (2018), “Functional Upgrading and Value Capture of Multinational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24(2), 108-122.
- Caligiuri, P. and J. Bonache (2016), “Evolving and Enduring Challenges in Global Mobility”,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27-141.
- Cascio, W. F. and J. W. Boudreau (2016), “The Search for Global Competence: From International HR to Talent Management”,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03-114.
- Cavusgil, S. T., G. Knight, J. R. Riesenberger, H. G. Rammal and E. L. Rose (2014), *International Business: The New Realities*, Pearson.
- Cheong, A., M. S. Sandhu, R. Edwards and W. C. Poon (2019), “Subsidiary Knowledge Flow Strategies and Purpose of Expatriate Assignment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8(3), 450-462.
- Chi, Sung-Pyo (2002), “The Effect of ‘9.11 Terror Shock’ upon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An Explanation by Global Game Model”, *Korea Trade Review*, 27(3), 211-228.
- Chittoor, R., P. S. Aulakh and S. Ray (2019), “Micro-Foundations of Firm Internationalization: The Owner CEO Effect”, *Global Strategy Journal*, 9(1), 42-65.
- Cho, Dong-Sung (2001), *International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Kyung-Moon Publisher.
- Choi, Bong-Ho and Gi-Whan Lee (2015), “Review of the Fisher Effect with Asymmetric Adjustment : Evidence from Asian Countries”, *Korea Trade Review*, 40(4), 385-407.
- Choi, Kwang-Ho (2018) “A Study on Determinants of Export Payment Terms in Korean Small & Medium Enterprises”, *Korea Trade Review*, 43(2) 159-180.
- Choi, Yu-Ri and Ho-Yeol Bang (2019), “A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Korea Trade Review*, 44(1), 321-336.
- Contractor, F. J. and J. J. Reuer (Eds.), (2019), *Frontiers of Alliance Research*,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ervo-Cazurra, A. (2016), “Corrup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35-49.

- Cui, L., Y. Li, K. E. Meyer and Z. Li (2015), "Leadership Experience Meets Ownership Structure: Returnee Managers and Internationalization of Emerging Economy Firm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5(3), 355-387.
- Cumming, D., I. Filatotchev, A. Knill, D. M. Reeb and I. Senbet (2017), "Law, Finance, and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8(2), 123-147.
- Davies, R. B., J. Martin, M. Parenti and F. Toubal (2018), "Knocking on Tax Haven's Door: Multinational Firms and Transfer Pric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0(1), 120-134.
- Dikova, D. and K. Brouthers (2016), "International Establishment Mode Choice: Past, Present, and Futur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6(4), 489-530.
- Doh, J. P., F. Luthans and J. Slocum (2016), "The World of Global Business 1965-2015: Perspectives on the 50th Anniversary Issue of the Journal of World Business",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5.
- Dunning, J. H. (2000), "The Eclectic Paradigm as an Envelope for Economic and Business Theories of MNE Activit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9(2), 163-190.
- Eckhardt, J. T. and S. A. Shane (2003),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Management*, 29(3), 333-349.
- Erel, I., R. C. Liao and M. S. Weisbach (2012),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Journal of Finance*, 67(3), 1045-1082.
- Faff, R. W. and A. Marshall (2005), "International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Foreign Exchange Rate Exposur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6(5), 539-558.
- Fetscherin, M., H. Voss and P. Gugler (2010), "30 yea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 An interdisciplinary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9(3), 235-246.
- Foss, N. J., R. Mudambi and S. Murtinu (2019), "Tax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On the Forced Redesign of Global Value Chains and Other Inefficienc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0(9), 1644-1655.
- Gomes, E., B. R. Barnes and T. Mahmood (2016), "A 22 Year Review of Strategic Alliance Research in the Leading Management Journal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5(1), 15-27.
- Greve, P., T. Biemann and W. Ruigrok (2015), "Foreign Executive Appointments: A Multi-level Examinat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50(4), 674-686.
- Gulanowski, D., N. Papadopoulos and L. Plante (2018), "Role of Knowledge in International Expansion: Toward an Integration of Competing Models of Internationaliz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Strategy*, 28(1), 25-60.
- Ha, Hong-Youl (2019), "The Brand Love-Loyalty Link of Korean Cosmetics in China: The Moderated Moderation Effects of Hedonic/Utilitarian Shopping Value and Gender Difference", *Korea Trade Review*, 44(5), 17-28.
- Han, Byoung-Sop (2015), "The Effects of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FDI Location Selection: Analysis with a Zero-inflated Poisson Model", *Korea Trade Review*, 40(2), 191-219.
- Han, Byoung-Sop and Eun-Kyoung Park (2016), "Learning through Partnerships: Acquirer Firms Experiences, Deal Partners Characteristics and the Failure of Cross Border M&A", *Korea Trade Review*, 41(2), 61-96.

- Han, Joo-Sup (1976),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With a Special Emphasis on Its Characteristics", *Korea Trade Review*, 2, 102-127.
- Han, Neung-Ho and Myong-Sop Pak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Logistics Company Innovation through Enterprise Network", *Korea Trade Review*, 36(2), 197-216.
- Hennart, J. -F. (2019), "The Transaction Cost Theory of Equity Joint Ventures: Past, Present and Future", In F. J. Contractor and J. J. Reuer (Eds.), *Frontiers of Alliance Research*,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82.
- Hill, C. W. L. (2011), *International Business: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McGraw-Hill.
- Hitt, M. A., D. Li and K. Xu (2016), "International Strategy: From Local to Global and Beyond",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58-73.
- Hoffmann, W., D. Lavie, J. J. Reuer and A. Shipilov (2018), "The Interpla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9(12), 3033-3052.
- Hong, Tae-wha, Young-Jun Choi and Ki-Hwan Kwon (2010),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Perspective on Foreign Market Entry of Character-Based SME", *Journal of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5(4), 141-167.
- Hou, W., S. Li and R. L. Priem (2013), "How Do CEOs Matter? The Moderating Effects of CEO Compensation and Tenure on Equity Ownership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9(2), 138-151.
- Hutzschenreuter, T. and J. Horstkotte (2013), "Performance Effects of International Expansion Processes: The moderating Role of Top Management Team Experienc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2(1), 259-277.
- Hutzschenreuter, T., I. Kleindienst and S. Lange (2016), "The Concept of Distance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8(2), 160-179.
- Hwang, Kyung-Yun and Dae-Woo Cho (2013), "The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on Activity on Internationalization of Manufacturing Firms", *Korea Trade Review*, 38(4), 159-186.
- Jacobides, M. G., C. Cennamo and A. Gawer (2018), "Towards a Theory of Ecosyste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9(8), 2255-2276.
- Jain, N. K., T. Kothari and V. Kumar (2016), "Location Choice Research: Proposing New Agenda",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6(3), 303-324.
- Johanson, J. and J. Vahlne (2009), "The Uppsala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Model Revisited: From Liability of Foreignness to Liability of Outsidership",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0(9), 1411-1431.
- Jung, Moon-Hyun (2018), "The Impact of Exchange Rate Volatility on Korea's Exports of Machinery Intermediate Goods to East Asian Countries : Arou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Trade Review*, 43(3), 169-198.
- Kale, P. and H. Singh (2009), "Managing Strategic Alliances: What Do We Know Now, and Where Do We Go from Here?",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23(3), 45-62.
- Kang, Kyung-Goo and Jung-Hoon Kim (2015), "Cultural Adaption of MNEs in Korea: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Trust in Leader between Political Skill and Affective Commitment", *Korea Trade Review*, 40(1), 1-28.
- Kang, Seok-Min and Min-Kyo Seo (2011), "The Impact of Religious Regulation on Foreign Direct

- Investment”, *Korea Trade Review*, 36(5), 53-71.
- Kang, Tae-Koo (2002), *International Business*, Park-Young Publisher.
- Kang, Tae-Koo and Sung-Uk Choi (2012),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wnership and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between First Foreign Investment and Sequential Foreign Investment in Korean Manufacturers”, *Korea Trade Review*, 37(2), 125-147.
- Kano, L., E. W. K. Tsang and H. W. -C. Yeung (2020), “Global Value Chains: A Review of the Multidisciplinary Litera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1(4), 577-622.
- Kawai, N. and C. C. Chung (2019), “Expatriate Utilization, Subsidiary Knowledge Creation and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Subsidiary Strategic Context”, *Journal of World Business*, 54(1), 24-36.
- Kemme, D. M., B. Parikh and T. Steigner (forthcoming), “Tax Morale and International Tax Evas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 Khelif, H. and I. Achek (2015), “The Determinants of Tax Evasion: A Literature Review”, *Managerial Law*, 57(5), 486-497.
- Kim, Chang-Bong and Hui-Cong Ding (2015), “The Causal Relation of Process Innovation, Partnerships, Information Capacity, and Business Performance in Chinese Textiles and Apparel Companies”, *Korea Trade Review*, 40(4), 87-109.
- Kim, Dae-Gon and Hag-Min Kim (2019), “Influence of Leadership Style on Affect Climat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Korean Export Manufacturing Enterprises”, *Korea Trade Review*, 44(3), 203-226.
- Kim, Jae-Kyung and Bong-Soo Lee (2019), “An 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 Determinants Influencing Re-invest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Focusing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Invested Local R&D Centers in Korea”, *Korea Trade Review*, 44(1), 87-99.
- Kim, Kyoung-Ae and Joo-Tae Kim (2010), “CEO Nationality and the Performance of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Evidence from Panel data”, *Korea Trade Review*, 35(5), 205-226.
- Kim, Min-Hee, Min-Ho Kim and Han-Mo Oh (2016), “The Effects of Firms’ Engagement in Fair Trade Practice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An Experimental Study on Koreans Attitude toward Foreign Coffee Brands”, *Korea Trade Review*, 41(5), 1-14.
- Kim, Soon-Woo, Byoung-Goo Kim and Chun-Su Lee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Guanxi on Performances of Korean IT SMEs in China”, *Korea Trade Review*, 36(5), 321-345.
- Kim, Yong-Kuk, Keun-Sik Park and Jun-Seung Kim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lection of Transportation Routes and Multipath Establishment of Automotive Parts from Korea to Europe”, *Korea Trade Review*, 44(6), 303-325.
- Kim, Yong-Yul (2010), “Cultural Environ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Culture Analysis of Sixty Countries”, *Korea Trade Review*, 35(2), 115-134.
- Kirzner, I. M. (1979), *Perception, Opportunity, and Profi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Klier, H., C. Schwens, F. B. Zapkau and D. Dikova (2017), “Which Resources Matter How and Where? A Meta-analysis on Firms’ Foreign Establishment Mode Choi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54(3), 304-339.
- Knight, G. A. and P. W. Liesch (2016), “Internationalization: From Incremental to Born Global”,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93-102.
- Kohlhase, S. and J. Pierk (2020), “The Effect of a Worldwide Tax System on Tax Management of Foreign Subsidia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1(8), 1312-1330.

- Kolk, A. (2016),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From Ethics and the Environment to CS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23-34.
- Kostova, T., P. C. Nell and A. K. Hoenen (2016), "Understanding Agency Problems in Headquarters-Subsidiary Relationships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 Contextualized Model", *Journal of Management*, 44(7), 2611-2637.
- Kostova, T., S. Beugelsdijk, W. R. Scott, V. E. Kunst, C. H. Chua and M. Van Essen (2020), "The Construct of Institutional Distance through the Lens of Different Institutional Perspectives: Review,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1(5), 467-497.
- Kostova, T., V. Marano and S. Tallman (2016), "Headquarters-Subsidiary Relationships in MNCs: Fifty Years of Evolving Research",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76-184.
- Kunisch, S., M. Menz and A. A. Cannella Jr. (2019), "The CEO as a Key Micro-Foundation of Global Strategy: Task Demands, CEO Origin, and the CEO's International Background", *Global Strategy Journal*, 9(1), 19-41.
- Kriz, A. and C. Welch (2018), "Innovation and Internationalisation Processes of Firms with New-to-the-World Technolog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9(4), 496-522.
- Kwon, Jae-Hyun, Chul-Hwan Han and Su-wan Seo (2010), "Information Sharing and Knowledge Acquisition through Cooperation among the Logistics Firms in China Market: Evidence from the Bohai Bay Region", *Korea Trade Review*, 35(5), 159-182.
- Kwon, Jong-Wook, Hak-Cho Kim and Ji-Seok Lee (2013), "A Study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Work Values among 6 Asian Countries", *Korea Trade Review*, 38(4), 47-68.
- Kwon, Ki-Hwan (2006), "Strategic Similarity Judgment in Corporate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Korea Trade Review*, 31(5), 65-88.
- Kwon, Ki-Hwan (2007), "Corporate Mechanism: Re-Conceptualization and Exploratory Case Stud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1(4), 277-306.
- Kwon, Ki-Hwan (2008), "Roles of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Capability Rebuilding for Globalization of Ventur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2(4), 195-218.
- Kwon, Ki-Hwan (2014), "Meta Analysis on International Trade Management", In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Ed), *Past, Present, and Future of Trade Research in Korea: 40th Anniversary of Korea Trade Review*, 409-442.
- Kwon, Ki-Hwan (2018), "Exploratory Study on Digital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Based MNC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2(1), 1-25.
- Kwon, Ki-Hwan and Choon-Woo Lee (2008), "Case Study Research on Korean SMEs: Meaning, Proces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0(1), 141-164.
- Kwon, Ki-Hwan and Ki-Hoon Kwon (2011), "Blue Ocean Approach on Opportunity Creation and Realization of Franchise Start-up", *Journal of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6(4), 1-23.
- Lee, Cheong-A and Ho-Yeol Bang (2008), "Cultural Distance, Foreign Entry Mode and Performance A Korean Case", *Korea Trade Review*, 33(1), 225-252.
- Lee, Chol and Chan-soo Park (2010), "The Effects Of Behavioral Attributes On Tacit Knowledge and Explicit Knowledge Transfer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 Korea", *Korea Trade Review*, 35(5), 227-255.
- Lee, Jang-Ho (2007), "Impacts of Resources, Networking, Strategic Choice, Control, and Institutions of Host Nations on Foreign Subsidiary Performances", *Korea Trade Review*, 32(4), 241-266.

- Li, Jia-En, Yin-Ling and Young-Jun Choi (2019),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GVC Participation and Trade in Value Added", *Korea Trade Review*, 44(5), 107-125.
- Li, P. -U. and F. -Y. Lo (2017), "Top Management Teams' Manageri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The Evidence Under an Uncertain Environment", *Management Decision*, 55(9), 1999-2017.
- Lind, C. H. and O. H. Kang (2017), "The Value-Adding Role of the Corporate Headquarters in Innovation Transfer Processes: The Issue of Headquarters Knowledge Situation",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7(4), 571-602.
- Lindner, T., J. Müllner and J. Puck (2016), "Cost of Capital in an International Context: Institutional Distance, Quality, and Dyna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22(3), 234-248.
- Luo, Y. and R. L. Tung (2007), "International Expansion of Emerging Market Enterprises: A Springboard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4), 481-498.
- McGaughey, S. and P. Raimondos (2019), "Shifting MNE Taxation from National to Global Profits: A Radical Reform Long Overdu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0(9), 1668-1683.
- McMullen, J. S. and D. A. Shepherd (2006), "Entrepreneurial Action and the Role of Uncertainty in the Theory of the Entrepreneu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132-152.
- Meyer, K. E. and K. R. Xin (2018), "Managing Talent in Emerging Economy Multinationals: Integrating Strategic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9(11), 1827-1855.
- Meyer, K. E., C. Li and A. P. J. Schotter (2020), "Managing the MNE Subsidiary: Advancing a Multi-Level and Dynamic Research Agend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1(4), 538-576.
- Mohr, A., C. Wang and A. Goerzen (2016), "The Impact of Partner Diversity within Multiparty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25(4), 883-894.
- Mudambi, R., L. Piscitello and L. Rabbiosi (2014), "Reverse Knowledge Transfer in MNEs: Subsidiary Innovativeness and Entry Modes", *Long Range Planning*, 47(1/2), 49-63.
- Nachum, L. and S. Song (2011), "The MNE as a Portfolio: Interdependencies in MNE Growth Trajecto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2(3), 381-405.
- Nippa, M. and J. J. Reuer (2019), "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0(4), 555-597.
- Nippa, M. and S. Beechler (2013), "What Do We Know about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n Search of Relevance and Holism", In T. M. Devinney, T. Pedersen, and L. Tihanyi (Eds.), *Advances in International Management*, 26, 363-396.
- Nuruzzaman, N., A. S. Gaur and R. B. Sambharya (2019), "A Micro-Foundations Approach to Studying Innovation in Multinational Subsidiaries", *Global Strategy Journal*, 9(1), 92-116.
- O'Brien, D., P. S. Scott, U. Andersson, T. C. Ambos and N. Fu (2019), "The Micro-Foundations of Subsidiary Initiatives: How Subsidiary Manager Activities Unlock Entrepreneurship", *Global Strategy Journal*, 9(1), 66-91.
- Oesterle, M. -J. and J. Wolf (2011), "50 Years of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and IB/IM Research: An Inventory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ield's Develop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1(6), 735-754.
- Oh, Kum-Sik, Min-Soo Joh and Byung-Il Park (2017), "Reverse Knowledge Transfer within the Intra-Firm Networks: The Role of Subsidiaries' Knowledge Transfer Capacity", *Korea Trade Review*, 42(5),

253-290.

- Oviatt, B. M. and P. P. McDougal (1995), "Global Start-Ups: Entrepreneurs on a Worldwide Sta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9(2), 30-44.
- Park, Jung-Min, Yun-ah Song and Jae-Eun Lee (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Distance on Speed of Post Acquisition Integration", *Korea Trade Review*, 38(3), 31-54.
- Park, Myong-Sop and Sung-Woo Cho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Absorptive Capacity of the Logistics Company in Korea", *Korea Trade Review*, 37(4), 205-228.
- Paul, J. and G. R. Benito (2018), "A Review of Research o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Emerging Countries Including China: What Do We Know? How Do We Know? and Where Should We Be Heading?",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4(1), 90-115.
- Paul, J. and M. M. Feliciano-Cestero (forthcoming), "Five Decades of Research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MNEs: An Over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 Paul, J. and R. Sánchez-Morcilio (2019), "Toward a New Model for Firm Internationalization: Conservative, Predictable, and Pacemaker Companies and Markets",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 36(3), 336-349.
- Pisani, N (2009),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Investigating Its Recent Diffusion in Top Management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35(2), 199-218.
- Pisani, N., A. Caldart and J. Hopma (2017), "SMEs' Formation of Minority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and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The Moderating Role of a Global Versus Regional Focu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5(3), 414-424.
- Pitelis, C. N. and D. J. Teece (2018), "The New MNE: 'Orchestration' Theory as Envelope of 'Internalisation' Theory",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8(4), 523-539.
- Puck, J. and I. Filatotchev (Forthcoming), "Finance and the Multinational Company: Building Bridges between Finance and Global Strategy Research", *Global Strategy Journal*.
- Putzhammer, M., S. Fainshmidt, J. F. Puck and A. Slangen (2018), "To Elevate or to Duplicate? Experiential Learning, Host-Country Institutions, and MNE Post-Entry Commitment Increase", *Journal of World Business*, 53(4), 568-580.
- Raab, K., B. Ambos and S. Tallman (2014), "Strong or Invisible Hands? Managerial Involvement in the Knowledge Sharing Process of Globally Dispersed Groups", *Journal of World Business*, 49(1), 32-41.
- Reiche, B. S., Y-T. Lee and D. G. Allen (2019), "Actors, Structure, and Processes: A Review and Conceptualization of Global Work Integrating IB and HRM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45(2), 359-383.
- Reuber, A. R., G. A. Knight, P. W. Liesch and L. Zhou (2018),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The Pursui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cross National Border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9(4), 395-406.
- Ricks, D. A., B. Toyne and Z. Martinez (1990),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16(2), 219-253.
- Rhee, Dong-Kee, Chul-Hyung Park and Young-Gon Cho (2009), "An Empirical Study for the Effects of Host Country's Cultural Openness on the Entry Mod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 Trade Review*, 34(1), 295-310.
- Ryoo, Sung-Woo and Cheol-Ju Mun (201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Global FDI on China's

-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Focusing on Korean FDI Characteristics by Major Cities in China”, *Korea Trade Review*, 43(4), 155-175.
- Santistevan, D. and E. Josserand (2019), “Meta-Teams: Getting Global Work Done in MNEs”, *Journal of Management*, 45(2), 510-539.
- Sarabi, A., F. Froese, D. H. M. Chng and K. E. Meyer (forthcoming), “Entrepreneurial Leadership and MNE Subsidiary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Subsidiary Contex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 Schmid, D. and D. Morschett (Forthcoming), “Decades of Research on Foreign Subsidiary Divestment: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Its Antecedent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 Schwens, C., F. B. Zapkau, K. D. Brouthers and L. Hollender (2018), “Limits to International Entry Mode Learning in SM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9(7), 809-831.
- Shane, S. and S. Venkataraman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ao, L., C. Kwok and O. Guedhami (2010), “National Culture and Dividend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1(8), 1391-1414.
- Shen, Z. and F. Puig (2018), “Spatial Dependence of the FDI Entry Mode Decision: Empirical Evidence From Emerging Market Enterpris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8(1), 171-193.
- Shen, Z., F. Puig and J. Paul (2017), “Foreign Market Entry Mode Research: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Trade Journal*, 31(5), 429-456.
- Shin, Hyun-Kil and Young-Ryeol Park (2012), “Impact of Psychic Distance on Performance of Korean Firm Subsidiaries Overseas”, *Korea Trade Review*, 37(2), 149-188.
- Short, J. C., D. J. Ketchen, Jr., C. L. Shook and R. D. Ireland (2010), “The Concept of “Opportunity”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Past Accomplishments and Future Challenges”, *Journal of Management*, 36(1), 40-65.
- Son, In-Sung and Si-Hyun Kim (2017), “The Impacts of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Alliance on the Firms Performance: Focused on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of Galaxy Note”, *Korea Trade Review*, 42(5), 113-136.
- Song, S. (Forthcoming), “Actualization of Growth Potential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The Moderating Effects of Localization Strateg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 Song, S., S. -H. Lee and M. Makhija (2015), “Operational Hedg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under Volatile and Divergent Exchange Rates Across Countries”, *Journal of World Business*, 50(3), 548-557.
- Song, Yun-Ah, Ki-Hyun Ryu, Jae-Eun Lee and Young-Ryeol Park (2008), “The Effects of Transaction Specific Capital and Transaction Relational Capital on IJVs Performance: Empirical Study on IJVs in Korea”, *Korea Trade Review*, 33(5), 455-474.
- Stefano, E., M. M. Larsen and L. Piscitello (2019), “Entry Mode Deviation: A Behavioral Approach to Internalization Theo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50(8), 1359-1371.
- Takeuchi, R., Y. Li, and M. Wang (2019), “Expatriates’ Performance Profiles: Examining the Effects of Work Experiences on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s”, *Journal of Management*, 45(2), 451-475.
- Tang, J., K. M. Kacmar, and L. Busenitz (2012), “Entrepreneurial Alertness in the Pursuit of New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1), 77-94.
- Teece, D. J. (2014), “A Dynamic Capabilities-Based Entrepreneurial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5(1), 8-37.
- Thams, Y., A. Chacar and M. Wiersema (Forthcoming), "Global Strategic Context and CEO Appointments: The Importance of a Global Mind-Set", *Global Strategy Journal*.
- Tung, R. L. (2016), "New Perspectives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142-152.
- Verbeke, A. and L. Kano (2016), "An Internalization Theory Perspective on the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Journal of World Business*, 51(1), 83-92.
- Werner, S. (2002),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20 Top Management Journals", *Journal of Management*, 28(3), 277-305.
- White, III, G. O., O. Guldiken, T. A. Hemphill, W. He and M. S. Khoobdeh (2016), "Trends in International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from 2000 to 2013: Text Mining and Bibliometric Analys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6(1), 35-65.
- Wright, R. W. and D. A. Ricks (1994), "Trends i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Twenty-Five Years Later",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4), 687-713.
- Yoo, Sung-Joon and Hag-Min Kim (2018), "A Qualitative Study for Barrier Factors of Korean Venture Firms Internationalization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Korea Trade Review*, 43(1), 199-221.
- Zhao, H., J. Ma and J. Yang (2017), "30 Years of Research on Entry Mode and Performance Relationship: A Meta-Analytical Review",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7(5), 653-682.
- Zhou, A. J., C. Fey and H. E. Yildiz (Forthcoming), "Fostering Integration through HRM Practice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bsorptive Capacity and Knowledge Transfer in Cross-Border M&As", *Journal of World Business*.